

# 道 민선8기 투자협약 실투자율 62% 돌파

지난해 6월 57% 3달 만 5.5%p 상승  
227건 중 46개사 투자 완료·가동  
입주·건설·준공 96개 기업 이행  
전담관리제 도입 밀착 지원 '성과'

전북도는 민선 8기 체결된 투자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62.5%에 해당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 실투자율 57%에서 3개월 만에 5.5%p 상승한 수치로, 투자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9월 기준 전북자치도가 체결한 투자협약은 총 227건으로 이 가운데 20.2%에 해당하는 46개 기업은 투자를 완료해 실제 가동하고 있다.

96개 기업(42.3%)은 입주 계약(53개소) 또는 건설 단계(36개소), 준공 완료(7개소) 등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하고 있고, 63개 기업(27.8%)은 투자 준비 단계에 있다.

일부 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투자 위축,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협약을 철회하고 투자 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4년 7월 투자 유치기업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기업의 투자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투자 협약부터 사업 준공, 실제 가동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분기별로 현장 방문과 유선 통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은 단순 민원과 복합 민원으로 나눠 기

업민원 신속처리단과 연계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담관리제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총 20건의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6건은 즉시 해결하고 나머지 4건은 단기·중장기 과제로 지속 관리하고 있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공장 부지 보 조금 지원, 환경 인허가 절차 지원, 자금

조달 연계 등으로 유치기업 전담제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기업유치 성과를 위해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투자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투자까지 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2026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전북도는 지난 9일 일반기자 30인과 전문필진 5명 구성의 전북특별자치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전북자치도>

##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유기상 고발은 정치공작”

도당 “근거 없는 고발” 의혹 반박  
“압수수색은 통상적 수사 절차”  
“선거 전 흠집내기 정치” 비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고창군 유기상 지역위원장(전 고창군수)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과 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지난 8일 진행된 압수수색은 고발이 접수된 사안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현재까지 어떠한 위법 사실도 확인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며 “언론이 추측이나 단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유기상 지역위원장 측의 입장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확인해 기사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번 고발의 본질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친목 모임에서의 회비 각출을 마치 불법행위인 것처럼 둔갑시켜 문제 삼은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적 위법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른바 ‘묻지마 고발’에 해당한다”며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인물을 흠집 내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려는 구대정치의 전형적인 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거 없는 고발과 의혹 제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며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러한 구대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 17기 출범 전문필진 합류 콘텐츠 강화

일반기자 30명 등 35인 1년 활동  
정책·문화·관광·일상 현장 전달

전북도는 지난 9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로 17기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블로그 기자단은 일반기자 30명과 전문필진 5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전북의 생생한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단에는 전북도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기자들이 포함돼 있어 지역 안팎의 시각을 아우르는 참신한 콘텐츠 제작이 기대된다. 특히 사진, 일러스트, 영상, 문화, 웹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필진 5명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깊이 있는 콘텐츠로 블로그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을 유도하기 위해 선거 브로커들을 통해 대규모 대포폰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공정한 여론조사 및 경

전북도는 기자단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재 지원과 콘텐츠 제작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정책과 매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블로그 기자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단의 활동이 전북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블로그 기자단 모집에는 일반기자 30명 선발에 218명이 지원해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은 지난 2009년 4월 개설 이후 올해 1월 기준 누적 방문자 수 2,542만여 명을 돌파하며 전북의 정책과 문화·관광 정보를 전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 ‘대포폰 경선’ 후폭풍…민주당 ‘안심번호 여론조사’ 손질론

진안군 안심번호 월간3천대 급증  
공천 물 신뢰 문제 논란 재점화  
선관위 전북경찰에 수사 의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포폰 경선’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기준인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여론조사(50%비중)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북 진안군에서 지방선거를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은 최근 전북경찰청에 ‘안심번호에 의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대포폰이 동원되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말 “진안군의 군수입후보자의 지지도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안심번호(SK, KT,

LG유플러스)의 진안군 총수가 지난 8월말 기준 10,436개로 지난 7월말 기준의 7,421개에 비해 무려 3,015개가 늘었다”며 선관위·전북경찰청에 고발했었다.

선관위는 이같은 고발을 근거로 진안군 안심번호 전화기의 증감을 조사한 뒤에 선거 브로커들에 의한 대포폰 유입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은 수사중이다.

안심번호는 국내 SK 등 3사에 가입한 알뜰폰 등을 제외한 일반전화 중 요금 청구지가 진안군으로 등록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추출하고, 여론조사기관은 안심번호를 모집단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진안군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2만4000명 내외이며, 안심번호수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는 7500개 내외

여론조사 연월일	안심번호 수	비 고
2025.01.20	7,586	
2025.06.23	7,436	
2025.08.23	7,421	
2025.09.23	10,436	3,015개 급증(40%)
2025.12.18	8,870	1,566개 급감(15%)
2025.12.30	10,456	1,586개 급증(18%)

민주당의 지선 공천기준인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안군의 2025년 월별 안심번호 수 증감현황

였으나 추석 전의 여론조사부터 기형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진안군의 안심번호 숫자는 지난 25년 1월 말 여론조사에서 7,586개였고, 지난 6월23일 조사에서는 7,436개, 8월 23일 조사에서는 7,421개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3일 실시된 조사에서는 전달에 비해 무려 3000여개가





# 道, 한국호텔업協과 MOU 올림픽 숙박 인프라 확보

골든타임TF, 숙박분야 첫 공식 협약  
유치 확정 시 45성급 호텔 활용 협조  
합리적 요금 책정·행정 지원 연계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 상시 점검

전북도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과제인 숙박 인프라 확보에 본격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한국호텔업협회와 전주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숙박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회 기간 안정적인 숙박 인프라와 국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가동 중인 '올림픽 골든타임 TF'의 숙박 분야 첫 공식 협약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시하는 대회 운영 여건 중 하나인 숙박 분야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림픽 유치 확정

시 한국호텔업협회는 대회 기간 중 4·5성급 호텔을 중심으로 한 주요 숙박 인프라의 우선 활용에 적극 협조하고 전 북자치도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책정과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연계 한다. 양측은 서비스 품질, 객실 안전, 환경 기준 등 국제대회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관리·운영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단발성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공동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해 회원 호텔 별 협력 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협약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호텔업협회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전국 200여 개 호텔을 회원사로 둔 국내 최대 호텔 단체로, 협회의 참여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숙박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



전북자치도는 9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한국호텔업협회와 전주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숙박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

번 협약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든든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호텔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북과 전주가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숙박을 비롯해 교통, 안전, 문화 프로그램 등 국제행사 전반에 걸친 준비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며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이원택 “한중 상무협력 대화 신설…새만금 투자 전환점”

‘15년 중단’ 장관급 소통채널 복원에  
이 의원 “새만금 재도약 계기”  
“신항 부지 일대 규제완화 필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한중 경제협력에 외교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경제 질서의 한 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한 것에 대해 “한중 간 경제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동북아 경제 협력의 새로운 흐름



이원택 의원

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15년간 중단됐던 한중 간 장관급 정례 소통 채널을 복원·고도화한 것으로, 교역·투자·공급망 협력 전반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한중 FTA 이후 공동 산업단지로 지정됐음에도 투자 성과가 미흡했던 새만금이 다시 공식 의제로 부상됐다”며 “새만금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협력 MOU 체결과 중국 상무부 투자조사단의 새만금 방문은 전북이 단순한 국내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공급망과 연결되는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전북의 통상·외교 레버리지(자렛대효과)를 확대하고, 부품·소재, 녹색에너지, 바이오·제약 등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상황 배후 부지 일대를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새만금이 K-푸드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투자 조사단 방문 이후”라며 “조사와 검토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실제 투자 프로젝트로 연결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내 상징성과 실효성을 갖춘 시범 투자 성사가 새만금 중국 투자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전북이 투자 즉시 가능한 인프라와 행정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실질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새만금과 중국이 동반 성장하는 실질적 투자가 가시화되기를 전북도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최대 4.6% 공제 혜택

내달 2일까지 신청 납부 가능

전북도는 202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4.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 기준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등 연

연납구분	공제율	비고(실제 공제율)
1월 연납	11개월분(2~12월)의 5%	연세액의 약 4.58%
3월 연납	9개월분(4~12월)의 5%	연세액의 약 3.75%
6월 연납	6개월분(7~12월)의 5%	연세액의 약 2.51%
9월 연납	3개월분(10~12월)의 5%	연세액의 약 1.26%

신청기간별 공제액

중 네 차례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3월에는 약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원래 1월 31일까지이나,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오는 2월 2일(월)까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기준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1월 중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및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순임 전북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많은 도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윤준병,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선임

지방선거의원정수 제도 정비  
장수 광역의원 처리 항방·촉각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9일 '6.3 제9회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로 구성되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 관련 법률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국회 내 핵심 특별위원회다.

이번 정개특위는 1명을 선출하는 장수군의 광역의원이 표의 등가성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장수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1명으로 할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병합하여 선출하게 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이같은 전북의 현안 등을 고려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

윤준병 의원

선거여론조사의 남발 방지, △에 비후보등록 시·군 차별 해소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선거제도·정치개혁에 앞장서왔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과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소외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읍·고창, 전북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 및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야간 연장돌봄’ 가동…26곳 10시·자정까지

공적 보호체계 강화 취지  
시설 등록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

전북도는 관내 마을돌봄시설 344개소 중 26개소를 선정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오후 8시가 지었던 돌봄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범부처 차원의 아동 보호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달빛 노동자의 저녁 생업, 맞벌이 부부의 예기치 못한 야근,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경조사 등으로 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6개 참여기관은 운영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1형 센터가 24개소이며, 자정까지 문을 여는 2형 센터는 2개소다.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10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완주군과 장수군이 각각 4개소, 정읍시와 김제시가 각 2개소를 운영한다.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에서도 각 1개소씩 야간 연장돌봄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용 대상의 전면 확대다. 종전에는 해당 시설에 등록된 아동만 연장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야간 연장돌봄은 시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대상 연령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교생이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또한 관할 지역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 직장 인근이나 출퇴근 동선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용 절차도 간편하게 마련됐다. 돌봄이 필요한 날 기준으로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최대 5일 전부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센터별 상황에 따라 1일 5천원이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참여 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063-227-5479)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하원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아동과 동반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는 향후 상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 한파 6대 행동요령

## ‘작은실천’으로 사고 예방 합시다

기상상황 확인하기  
한파주의보 -12℃ 이하  
한파경보 -15℃ 이하

야외활동 자제  
저체온증·동상 위험 급증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주변 이웃  
안전살피기

수도관 동파 예방







#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발표

##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감사위원 감사…내부 통제장치 문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25.11.24~12.19.까지 총 26명(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결과 발표는 현재까지 확인된 감사내용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처분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25.11.24~12.19.까지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두 곳에 감사장을 설치해 동시에 실시했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6명)가 참여했다.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감사)·농업 금융정책과·농촌사회서비스과(지도·감독) 업무 담당자 9명과 농업정책보협 금융원 등 4개 공공기관 감사·검사업무 담당자 11명이 협력하는 등 총 26명을 투입해 진행했다.

주요 감사내용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26.1.5.)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제보시기, 감사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중앙회 37, 재단 1)도 추가 감사.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 현장확인 어려움 등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하기 어려웠던 회원조합도 현장 중심 특정감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와 연계해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

할 예정

△농협중앙회(인사총무팀)에서 일부 농업인 단체 및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한적·폐쇄적으로 구성·운영 △2024년 제15차 이사회에서는 특별성과보수를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함으로써 지급사유·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부회장(전무이사), 집행간부 등 11명에게 총액 157백만원(14~16백만원) 지급 △농협중앙회는 부서별·직급별 정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감사위원장이 아닌 부회장(전무이사)에게 인사서열(승진·전보)을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인사부서가 승진 규모를 검토·조정함으로써 조합감사위원회의 인사독립을 훼손

△정보목록 공개,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비상임 이사·감사, 조합감사위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수당(월 3~4백만원)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지급 △농협장학관장은 규정에서 정한 직급(M·3·4급)이 아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 △기부품목이 농업인 등에게 기부목적에 맞게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 안됨 △농협 관련 자회사 등과 수익계약을 통해 간접 구입하는 등 남

득하기 어려운 계약방식들이 다수 발견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90백만원의 실비·수당, 농민신문사에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前회장 420백만원)까지 수령하면서 퇴직시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前회장 323백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별다른 제한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 및 집행실태를 검토할 계획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구성원 5명 중 3명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전직 임원 또는 前·現 조합장으로 구성된 점, 준법감시인이 내부인으로 임명돼온 점 등 내부통제 역할을 해야 할 조직이 내·외부의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돼 온 것이 낡은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점검·검토할 계획이다.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위촉,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거쳐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장수한우’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무진장축협 한우…인증서수상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9일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의 대표 한우 브랜드인 ‘장수한우’가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이 주관한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돼 2025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무진장축협 ‘장수한우’는 청정 환경에서 키운 한우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위생·품질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생산하고 있다.

우수축산물 인증브랜드는 신청 자격에서부터 엄선된 브랜드를 위주로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에 브랜드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인증제도이다.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은 “‘장수한우’ 브랜드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우수축산물로 다시 한번 검증받은 좋은 기회였고, 더욱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인증받아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장수한우’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는 우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인건비 때문 아냐”

## “최소 근무 기간 3년 이상 보장돼야” 한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건비 절감(13.4%)보다 △내국인 구인난(82.6%)이 심하기 때문이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인 취업 기피'[(‘23년)89.8%→(‘24년)90.2%→(‘25년)92.9%]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높은 급여와 고용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53.2만원(급여 216.5만원, 잔업수당 32.1만원, 부대비용 4.6만원)이다.

숙박비(39.6만원) 포함 시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292.8만원으로 응답업체

66.6%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23년)211.3만원→(‘24년)213.1만원→(‘25년)216.5만원]과 반대로 잔업수당은 지속적으로 하락해[(‘23년)48.1만원→(‘24년)42.5만원→(‘25년)32.1만원] 중소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응답업체 97.8%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답했다.

이외 △인건비 이외 고용 비용 부담(신청 수수료, 숙식비 제공 등)(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순으로 응답해 비용 부담이 고용 한도 미달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대비 66.8%의 생산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97.1%의 기업이 수급 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평균 3.4개월의 수급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과반수 가까이 응답[(‘24년)29.5%→(‘25년)48.2%)했다. 이는 중소기업체들의 고숙련 직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31~50인 기업의 경우 59.7%(그런 편이다 58.3% + 매우 그렇다 1.4%)로 높게 나타나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보였다.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94%가 사업장에서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 3년 19.6%)으로 답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숙련 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단 3.1%p로 한국어 능력이 채용 시 중요 고려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

어 수준)'이 과반수 이상(52.1%)을 차지했다.

의사소통 애로사항으로 '작업 지시 오히려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어 수준이 생산성과 연관됨을 시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양육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중기청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제도 변경 등 설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2026년 전북지역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오는 14일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지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발 구매목표비율과 2026년 기술개발제품 재지정 등 제도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질의를 받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구매담당자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임력을 위한 공공구매정보망(SMP) 이용방법 및 실적 집계 기준 안내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

다.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4조 4,449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6.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에도 공공구매제도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기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적극적인 공공구매제도 이행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첫 단계”라며 “이번 설명회가 전북 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농식품부 “돼지고기, 계란” 할인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1월 8일(목)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천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

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을 통해 납품단이 인하(특란 30구 6,100원 이하로 납품 시 판

당 1천원 지원)를 1차 1월 8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

2월에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기 성수기(5~8월)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을 위한 육용종란(712만개) 수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 동심협력 농심천심 운동 총력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지난 9일 신년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에는 전북농협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서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시상상이 함께 이뤄졌다.

또 전북농협 임·직원들은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農心天心)’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동심협력(同心協力)’해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대·내외적으

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농업인과 협력이 함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북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농업인과 협력이 함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북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 구급 유공자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한 해 동안 헌신적인 구급활동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소속 직원 3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각종 재난·응급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역량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대상으로 수여됐다. 수상자 중 하경옥 소방경은 구급팀장으로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과 병원 간 이송·처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급업무 전반을 총괄해 왔다.

강기에 소방장은 구급기술경연대회 운영요원으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교

육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구급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대원 간 업무 공유와 소통에 기여했다.

특히 이강옥 소방교는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응급처치로 전북 도내 최다 자발순환 회복(ROSC·심폐소생술 성공) 사례를 기록하며, 현장 구급활동의 성과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이번 수상은 각종 응급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대원들의 헌정 대응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구급활동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2026학년도 평준화 고교 합격자 9,328명 발표

## 오늘 공개 추첨 16일 배정 결과 발표 19~21일 합격자 등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9일 2026학년도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신입학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신입생 모집정원은 총 9,368명으로 지원자는 9,665명이었다.

이중 전주 5,798명, 군산 1,850명, 익산 1,680명이 합격했다. 불합격자는 전주 98명, 익산 13명, 군산은 없다.

군산 지역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수가 전년 대비 75명 증가(2,435명→2,510명)했으나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10명(1,905명→1,895명)

감소하고, 특성하고 지원자가 56명(238명→294명) 증가하면서 31명 미달됐다.

전체 지원자 9,368명 중 226명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중복지원이 가능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에 합격했다.

정원 외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특례 입학대상자)는 별도 선발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학부모·학생·언론인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합격자 학교배정 공개 추첨회를 진행한다. 참관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는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학교배정 결과 발표는 오는 16일 오후 2시며, 소속 중학교와 전북고입전형포털에 접수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다. 배정된 학교는 변경이 불가능하



다.

전·후기 합격자의 등록기간은 오는 19~21일까지며,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올해 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한편 평준화지역 39개교를 제외한 93개 고등학교 중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오는 2월 2~3일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최성민 기자

## “사회정서교육 강화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북교육청, 교사연구회도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2026년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자기이해, 대인관계, 공동체 역량 등을 강화하는 학교 기반 교육이다.

도내 초·중·고1·고2 학년을 중점학년 대상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조화·종려 시간을 활용해 연간 6차시 교육을 운영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늘봄우리 누리집과 에듀넷에 교수학습 지도안, PPT, 솜뿔, 범교과용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영상자료가 탑재돼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정서교육 중점학교 30개교를 운영한다. 감사와 배려

프로젝트와 소식지를 발행하는 중점학교는 교과 및 학교 자율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활용해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 운영한다.

중점학교 공모는 2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17차시 교수학습자료는 사회정서교육 교사연구회를 구성·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 권역별로 찾아가는 사회정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의 사회정서교육 이해와 현장 적용 방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최근 학생이 불안이나 외로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는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해 자기 이해와 타인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마음을 성장시키는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제4기 전북학생의회 구성 완료

### 지역학교급·성별 균형 미래사회 리더 성장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제4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이하 전북학생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나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제4기 전북학생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천형 의원(10명)’과 ‘지역교육청의 추천형 의원(40명)’ 총 50명의 학생의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14개 교육지원청의 추천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함은 물론 초·중·고·고1·고2 등 고른 선발을 통해 학교급 간의 연계성을 높였다.

성별 비율 역시 남학생 24명, 여학생 26명으로 구성해 균형 잡힌 시각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예비 학생의원들이 의정

활동의 핵심 주체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2026 전북 및 지역 학생의회 역량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 연수는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한 유대감 형성 △전북학생의회 운영 법령 및 규정 이해 △전북 10대 핵심과제 △정책 발굴 및 제안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원들의 자치 역할을 기르고, 공동체 정신 및 소통 역량을 겸

비한 미래사회 리더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제4기 학생의회는 지역과 학교급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구성을 통해 전북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명확한 정당성을 갖췄다”며 “전북의 학생들이 교육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직접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현대모터스FC ‘대형 스트라이커’ 모따 영입

### 최전방 공격라인 완성

전북현대모터스FC가 검증된 브라질 출신 대형 스트라이커 모따(29세)를 FC 안양으로부터 임대 영입하며 공격진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전북현대가 지난 9일 지난 시즌 K리그1 득점 순위 5위(14득점 4도움)에 오르며 FC안양에서 맹활약한 모따가 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모따는 193cm, 87kg의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단순한 높이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발기술과 연계 플레이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전북현대는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최전방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모따를 전격 낙점했다.

전북현대는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공격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K리그1의 완벽한 적응을 끝낸 모따를 콤파노, 티아고 선수와의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했다.

특히 세 선수가 최전방에서 선보일 제공권 장악을 비롯한 파워 넘치는 공격과 골 결정력은 리그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현대의 2선 자원들과의 시너지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따는 2022년 한국 무대에 입성한 이후 2024년까지 천안시티FC에서 활약하며 득점왕(2024년)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선보였다.

/장정철 기자

지난해 승격한 FC안양으로 팀을 옮겨 K리그1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모따는 14득점 4도움을 올리며 다시 한번 자신의 기량을 입증했다.

모따는 입단 소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의 유니폼을 입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전주성의 열기를 기억하고 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팀의 11번째 K리그1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전주성의 함성 속에서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현대 선수단은 지난 7일 소집해 2026시즌을 위한 첫 훈련에 돌입했으며 11일 동계 전지훈련을 떠났다.

/장정철 기자



## 전주대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서 ‘5년 인증’

15년 연속 인증 유지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학과 비전 및 운영체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27개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 전문적이고 양질의 간호 교육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간호교육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공인제도다.

전주대학교 간호학과는 2022년부터 입학정원 증가를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2026년 현재 101명의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입학정원의 증가에 따라

실습실을 추가로 구축, 시뮬레이션 수업을 위한 공간 및 환경 구축 등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아울러 학과 인재상을 새롭게 재정비해 △모범형 간호인재 △실무형 간호인재 △전문가형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해 나가고 있다.

김현영 간호학과장은 “질 높은 간호교육을 목표로 매년 교육과정 및 학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군산시, 27일까지 스마트원에 분야 자체 사업 신청·접수

군산시가 원예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스마트원에 분야 자체 사업 관련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하는 스마트원에 분야 자체 사업은 △ 원예농산물 공선 출하 조직 육성 지원 △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 스마트원에 패키지 지원 △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원예농업 재해 안전 지원 △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지원사업 등 총 9개이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 예정지(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7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별 시행 지침 등 세부 내용은 군산 시청 누리집(www.gunsan.go.kr)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gunsan.go.kr/fa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어린이전용병동' 재도약 나서

지난 2025년 5월 문을 연 '서남권 소아의래진료센터 및 어린이전용병동'이 운영 첫 해부터 지역 소아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 정읍시는 최근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0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확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주하며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 종료 이후 시간대나 휴일에는 전문의 당직 체계와 응급실 연계 시스템을 가동해 야간 소아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 학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인근 대도시로 나가야 했던 '원정 진료'의 불편을 크게 덜어주며, 소아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시가 2025년 연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소아외래진료센터는 87.8점, 어린이전용병동은 89.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용자들은 특히 전문성 있는 의료진의 확보와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 쾌적하게 조성된 병원 시설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학수 시장은 "2025년이 센터와 병동의 운영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2026년은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아쉬운 점은 개선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통합 원광대, 보건의료 인재 발굴··외국인 유학생 유치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인재 발굴을 위한 해외 유학생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를 방문해 현지 대학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인재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원광대학교의 '헬니스케이프'와 신실과 원광보건대학교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과 연계해 진행했다. 보건의료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익산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협력체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반량사이공대학교와 호치민시산업대학교, 사이공공업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시는 베트남 노동부 산하 인력수급기관인 '소비리코(SOVILCO)'와 온라인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 유학생 유치를 넘어, 졸업 이후 지역 보건의료 시설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와 익산시 외국인 지원정책을 적극 연계해 교육·산업·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형 AI산업’ 육성 산·학·연·관 맞손

## 인공지능 기반 구축 지역 주력산업 융합 방안·실행 전략 모색

익산시가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익산형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위원회' 발대식과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위원회는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임기현 원광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와 익산시 정책과 인공지능 산업의 연계 방안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됐다.

특히 '익산시 인공지능 산업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데이터 기반 구축과 실증 환경 조성, 전문 인재 양성,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익산시가 추진해야 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방향이 공유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부서 간 연계 강화와 지역 주력산업과의 인공지능 융합, 기업 유치 및 실증 기반 마련 등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이학수 정읍시장, 한파 대비 긴급 현장 점검

## 제설 창고·한파 쉼터 방문 “시민 안전 최우선”

정읍시가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예보된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기상청의 악천후 예보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겨울철 자연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일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손연국 도시안전국장, 김성익 재난안전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해

제설 자재 보관 창고와 한파 쉼터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먼저 이 시장은 제설 자재 보관 창고를 찾아 염화칼슘 등 필수 자재의 비축 현황과 제설 차량 등 장비의 작동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눈이 내릴 경우 지체 없이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머무는 쉼터를 방문해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확인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추위에 약한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쉼터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

해 점검 중 드러난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재해 우려 지역과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자체적인 점검을 병행했다. 금강사지나 삼승 결빙 구간 등 위험 지역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폭설에 무너지기 쉬운 시설물의 안전 관리 상황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과 한파는 사전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재난"이라며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전국 선수단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

## 1~2월 야구·유도·펜싱 등 다양한 종목 훈련 이어져

익산시가 동계 전지훈련을 잇달아 유치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겨울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익산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3주간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육상 미래 국가대표 후보·청소년·꿈나무 선수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육상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며, 투척 종목을 비롯해 육상 엘리트 스포츠 훈련의 최적

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투척 종목 꿈나무 선수부터 국가대표 후보 선수까지 75명이 참가한다. 성호준 전임감독을 비롯한 지도자 11명과 의무 트레이너 1명이 함께해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국기교육지원청과 포항교육지원청, 경남체고 등 전국 각지에서 3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미래 국가대표 선수들과 합동 강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상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야구와 유도, 펜싱 등 다양한 종목의 동계 전지훈련도 이어진다.

서울 대치중학교 야구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익산보조야구장에서 담금질에 돌입하며, 2월 중순에는 전국 리틀야구단이 참가하는 스토브리그가 열린다.

이와 함께 유도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익산에서 기량을 연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 '수수료 0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환급형 무수수료 모델' 도입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수수료 없는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출하 농가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 환급하는 '환급형 무수수료 모델'을 도입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하 농가에 일괄적으로 10%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분기별 환급을 적용해 소규모·영세 농가일수록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

농가별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 환급 기준은 △500만 원 미만 '전액'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5%'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2%'가 적용된다.

이는 지역농업인의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영 안정과 재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은 '생산은 농민이, 유통·판매는 익산시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정책 전환으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먹거리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처우 개선 나서

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들의 인건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아동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준비해 나갔다.

이번 대응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가 당초 요구액 대비 10%(약 5,900만 원)가 감액됨에 따라 조리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른 '아동급식비 자율지출분(급식 단가의 20% 이내)'을 한시적으

로 활용하는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급식비 자율지출분이 인건비, 연료비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리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양과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시비 직불금 129억원으로 상향

### "농가 경영난 덜어준다"

정읍시가 고물가와 쌀값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 직불금을 당초 계획보다 20억원 늘린 총 129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시비 직불금은 전액 정읍시의 자체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논과 밭의 구분 없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지 합산 0.1ha

이상, 최대 3ha까지다.

수혜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약 1만 3440명으로, 시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두 차례로 나눴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109억원은 오는 14일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에 확대된 시비 직불금이 고물가와 경영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청년센터 '청년 생태계' 구축 성과

군산시는 군산시 청년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 기반의 '청년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실제로 작년에 운영한 14개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총 3,433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자격취득 5종 △청년정책 아이디어 15건 발굴 등 실질적 결과물을 창출해냈다.

우선 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산업 및 AI·SW 분야 중심의 지역특화 인재 육성에 힘썼다.

일례로 배터리성능평가사, 이차전지 성능평가사 등 지역산업 특화 자격취득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시간 3D 렌더링 제작 플랫폼인 Unity의 국제공인 자격증 취득을 통해 97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지엘캠 등 전북

주요 기업 탐방(182명 참여)으로 이론과 현장을 연계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시는 직무 능력뿐 아니라 청년 심리를 보살피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정서적 지원도 병행했다.

실제로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전북청년마음건강센터·군산세무서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1:1 맞춤형 심리·생활 상담 80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 청년센터는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청년 생태계'를 구축했다"라며 "전방위적 청년 지원 성과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군산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순창발효관광재단 주민참여 축제 ‘성과’

관광재단 첫 전북도지사 표창 수상  
떡볶이 페스타·읍면 마을축제 등  
발효자원 활용 고도화 모델 구축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지난 9일 관광재단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와 순창군 11개 읍·면 마을축제의 기획·운영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과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한 점이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으며 수상으로 이어졌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순창 고추장을 기본 양념으로 활용한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를 주민참여형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순창발효테마파크와 전통고추장만족마을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읍·면별 특색 있는 떡볶이 메뉴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는 이번 표창을 통해, 지역 고



순창발효관광재단이 9일 관광재단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유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 기획과 주민 주도형 운영 모델을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읍·면 단위 마을 축제를 체계적으로 개발·고도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실제로,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는 전통 발효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었으며,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행사 기간 동안 운영된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 공연, 먹거리 콘텐츠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층의 방문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순창군 11개 읍·면 마을축제는 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반영한 맞춤형 축제로 재편돼, 지역 간 균형 있는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선윤숙 순창발효관광재단 대표는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소양 복합체육시설·구이저수지 둘레길 ‘속도’

연초방문객 핵심 현안사업 설명  
생활체육 조성·관광코스 브랜드화

완주군 소양면 복합체육시설과 구이면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소양면과 구이면을 차례로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첫 방문지인 소양면에서는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조성 중인 복합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 축구장, 다목적 편익시설 등을 갖춘 주민 생활 밀착형 체육공간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은 무대 및 비가림막 설치, 야간조명 도입, 배수시설 보강, 파크골프장 코스 재설계와 18홀 확장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어 구이면에서는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9일 소양면과 구이면을 차례로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완주군>

접점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총 연장 9.3km 규모로, 기존 구간과 신규 구간을 연결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호수마을과 원랑가마마을을 잇는 수상 데크로드 조성이 완료되면서, 끊겨 있던 동선이 하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수상레저단지와 기존 관광자원 연계, 지

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군은 둘레길을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 브랜드화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사업이다. 특히 호수마을과 원랑가마마을을 잇는 수상 데크로드 조성이 완료되면서, 끊겨 있던 동선이 하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수상레저단지와 기존 관광자원 연계, 지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출산·양육 가정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2자녀 가정 경우 취득세 50% 경감  
출산 후 5년 내 주택 500만원 면제

남원시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및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감면은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7인·10인승 승용차·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되,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을 한도로 경감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 2명의 자녀를 양

육하는 가정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70만원을 한도로 50%를 경감한다.

감면 혜택은 한 가구당 하나의 차량이 적용되며 기존 감면 차량을 보유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과 차량은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필수적 생활 기반이라는 점에서 취득세 감면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道 2025 하반기 지방세 징수평가 최우수

징수율·체납액 정리 실적  
행정 시스템 등 우수 평가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세징 행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25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의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정리 실적 △현안 업무 추진 성과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우수 시·군을 선발했다.

완주군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다각적인 징수 전략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변호관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효율적인 세무 행정 시

스템을 통한 체납 관리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분할 납부 편의 제공 등을 병행하며 조세 정의와 납세자 편의를 동시에 챙겼다는 평가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확보된 세원은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 더 건전한 자부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나서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대상  
최대 3천 보장 자부담 2만원

순창군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나선다.

군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500대를 넘어선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2025년부터 보험 지원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063-650-1202)으로 연락하면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대인·대물 배상)에 한 정되므로,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농식품 바우처 청년까지 확대…연중 지원

청년 가구 포함 사각지대 줄여  
지원 기간 10→12개월 확대

남원시는 2026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이 청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규 신청 접수를 최근 시작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했던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더해, 주민등록 기준 199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

이 출생한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연중 12개월로 확대됐다.

신규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 고객지원센터(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담당팀과 맞춤형복지팀이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인지 부족이나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과 홍보를 병행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지원 총력

딸기 농가서 농작업 현장 교육  
소통 지원 시청각자료 제작·예정

완주군이 겨울철 농번기를 앞두고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현장 적응력과 농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밀착형 현장 지원에 나선다.

우선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삼례읍 삼례리 소재 순천선 농가(딸기 하우스)에서 신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작업 기술 습득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농작업 수요가 급증한 딸기 재배 현장에 맞춰 △수확 방법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꽃수기(적화) △유효한 성장을 돕는 잎작업(적엽) 등 핵심 영농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을 ‘집중 현장 지원 기간’으로 운영하며, 55개 농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83명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인한 작업 혼

완주군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신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작업 기술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완주군>

선을 줄이기 위해 통역을 지원해 작업 내용과 안전 수칙을 명확히 전달하고 생활 전반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가와 근로자 간 잠재적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했다.

군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농작업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영농 시기별 농작업 시청각(동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입국한 숙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성실근로자 모범 작업단’을 구성해 신규 근로자에게 작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형 신중년 일자리’ 자체예산으로 사업 이어가

노동부 공모 폐지에도 연속 추진  
6개 분야 경력·전문 보유자 모집

남원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폐지 이후에도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남원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 인력이 지역사회와 공공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6개 분야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1월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원예·정원·조경 및 치유·심리상담 분야 △사서 및 독서 지도 관련 자격 또는 도서관 근무 경력자 △의료기관 간호 근무 경력자 △토목 분야 △인권 관련 또는 외국인 관련 업무 실무 경력자 △소상공인 지원, 경영 컨설팅, 금융기관 근무 경력자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대상자 모집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는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 60세부터 70세(1956~1966년생) 시민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희망자 2,000명을 2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는 단 한 번의 채혈로 혈액 속 ‘베타-아밀로이드 농도’를 측정하여 10~15년 후 발병할 수 있는 치매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검사로 검사비는 무료이며 남원시가 전액 부담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남원시 치매안심센터(620-7706)나 가까운 보건지소·진료소에 전화나 방문 접수 후 예약일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검사 절차는 1차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정상군에 한해 2차 혈액검사를 실시하며 1차 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적인 검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검사 이후에는 남원시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치매 예방 교육 앱(기억하리)을 활용한 인지훈련을 비롯해, 검사 결과에 따른 치매 예방 콘텐츠 제공 및 신체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치매 예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 선발

완주군립중앙도서관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동화구연과 책 놀이 활동을 펼칠 ‘2026년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 단원을 모집한다.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은 책을 매개로 세대와 이웃을 잇는 찾아가는 독서문화 나눔 사업으로, 문화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따뜻한 독서 경험과 정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사업 기간은 11월까지다.

선발된 단원은 2월부터 3월까지 총 16회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교육 수료 후에는 4월부터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기관 등 20개소에서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사전교육은 책 읽어주기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동화구연 방법, 책 놀이 활동 기획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된다. 이후 현장 활동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독서 경험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관우 도서관사업소장은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은 책을 통해 세대와 이웃을 잇는 뜻깊은 문화나눔 활동”이라며 “독서와 봉사에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새해 맞이 조찬기도회 “지역사회 연대·발전 기원”

순창군기독교연합회(회장 강형구 목사, 순창제일교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9일 순창군청 3층 회의실에서 ‘순창군 발전과 군민 안녕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기도회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및 장로진, 그리고 군청 간부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순창군의 화합과 평안을 함께 기원했다.

행사는 묵상기도를 시작으로,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기도, 그리고 축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군정이 안정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다.

특히 군 발전과 군민 통합, 평안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이어진 조찬 시간 동안 서로 덕담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연대와 희망을 다시금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최영일 군수는 “매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순창이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군산 한라비발디센터로 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과 라면 기탁

군산시 구암동(동장 박수현)은 한라비발디센터로 어린이집(원장 이은영)이 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3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기탁에는 원생 35명과 교직원 12명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아이들과 교직원들은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원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기부한 라면이 성품에 포함되어 있어 더욱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은영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바자회를 준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교육의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주)신성건설, 익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익산시는 지난 9일 '㈜신성건설'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용호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성건설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성건설은 전주시 소재 건설업체로 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설사업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수소에너지고 감사패 수상

### 지역 인재 육성·학생 복지 증진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9일 지역 인재 육성과 학생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장학금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복지와 교육 여

건 개선에 기여했으며, 교육격차 해소와 진로·학습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건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이러한 지원과 관심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정읍사회복지관, 국제 NGO 글로벌쉐어 통해 신발 후원 받아

### 신발 2980켤레 후원

정읍사회복지관은 지난 7일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글로벌쉐어를 통해 ㈜티앤씨아이엔티로부터 총 6676만 5000원 상당의 신발 2980켤레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원된 신발은 복지관 이용자들을 비롯해 드림스타트, 정읍 시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신발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정관일 관장은 “양질의 신발을 대량으로 후원해 준 글로벌쉐어와 ㈜티앤씨아이엔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후원 물품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연계해 주민 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힘을 계획한다.

/정읍=김정민 기자



## 대일화학 유운규 대표, 순창군에 성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지난 9일 대일화학 유운규 대표가 고항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순창군 적성면 출신인 유운규 대표는 현재 대일화학을 운영하며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대표는 지난 2023년에도 고항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고항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운규 대표는 “타지에서 생활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내 고향 순창을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향을 응원하며 순창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는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진안백운면 출신 정일범 씨, 장학금 1,000만원 기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난 8일 진안 부군수실에서 백운면 출신 정일범 씨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정일범 씨가 고(故) 김광석 가수의 30주기를 기념해 지난 3일 전주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개최한 '1995년 김광석 슈퍼콘서트 Again'의 공연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정일범 씨는 2010년 백운초등학교

교 학예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타 연주와 가족 합창을 선보인 것을 계기로 통기타 연주를 시작했으며, 이후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전라북도소방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군청 퇴직 공무원 행사 등에서 공연 봉사를 펼치며 재능기부 활동도 지속해 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 가수마을 이장 오영근, 장학금 200만원 기탁

지난군 성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오영근 가수마을 이장은 “마을을 돌보는 이장으로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저 우리 학생들이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변함없이 4년 연속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오영근 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꾸준한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진안의 인재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뿐 아니라,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진안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순북음중양교회, 익산시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성금 기탁

익산시에 자립준비청년들의 희망찬 출발을 응원하는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 9일 '순북음중양교회'로부터 성금 2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해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헌금으로 마련됐다.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바울 목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가 종료된 이후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탁이 청년들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 화재예방 수칙

### 1. 태진 불씨 확인 철저

### 2. 담배꽂초 무단투기 금지

### 3. 음식물 조리 중 자리 지키기

### 4. 초 사용시 주변 가연물 제거



〈一事一言〉



무너진 인사, 추락한 신뢰 - 남원시 행정의 퇴행

김관춘

주필

남원시 행정이 깊은 수렁 속에 빠졌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꼴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최근 2년 가까이 이어진 인사 비리 의혹의 중심인물과 함께 최경식 남원시장까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정과 원칙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공공기관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깊은 모욕이자 배신으로 다가온다. 문제의 핵심은 남원시 인사가 상식과 공정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는 데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법으로 체포된 공무원이 불과 두 달 만에 승진 대상이 되고, 경찰 수사를 받는 인사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되는 현실을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판단 미숙의 차원을 넘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린 ‘제 식구 챙기기’와 권한 남용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특히 인사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5급 공무원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한 결정은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가 ‘재기 불능 수준의 인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지자체가 최소한의 반성과 자정 노력조차 없이 논란의 당사자를 중용하는 모습은, 스

스로 개혁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 논란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음주 측정 거부 사건 이후 이어진 승진 취소, 초고속 특별 승진 논란, 그리고 다시 불거진 서기관 승진 내정까지, 남원시 인사를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두 차례나 이뤄졌고, 시장실까지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됐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논란이 커질 때마다 “문제 없다”거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해명만 반복할 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경식 시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반복되는 인사 파문에 대해 정치적·도리적 책임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책임 있는 리더라면 최소한 시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인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약속부터 내놓는 것이 상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사 비리가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점이다. 묵묵히 일해 온 다수의 공무원들은 “원칙을 지켜 다 소용없다”는 허탈감에 빠지고, 조직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붕괴된다. 이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인사 정의가 무너진 조직에서 청렴 행정과 시민 중심 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제 남원시는 더 이상 시간 끌기나 책임 회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전북자치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인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묻고, 인사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 검증 기구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인사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그 근간이 무너지면 행정도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는다.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은 단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행정 전반에 던지는 경고다. 남원시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실질적인 개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물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 혹독한 시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특정 인물의 일탈이나 개별 인사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누가 승진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승진이 가능했는가’다. 반복되는 논란은 남원시 인사 시스템 전반이 특정 권력과 관계, 비공식적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인사 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기능했는지, 내부 견제 장치는 작동했는지, 규정과 원칙이 실제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인사권자의 판단이 행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

면, 이번 사안은 ‘신뢰의 위기’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인사는 공직사회의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이 흔들리면 공무원들은 방향을 잃고, 시민들은 행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남원시가 인사 논란을 방치한 채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시민의 불신은 이미 견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꼬리 자르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직사회 안팎의 불안이다.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실무자 선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뿐이다. 전북도 역시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적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남원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인사 비리 의혹을 ‘과거의 소란’으로 덮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픈 상처를 도려내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후자를 택하지 않는다면 남원시 행정은 앞으로도 끊임 없는 의혹과 불신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공정과 청렴을 회복하지 못한 행정은 결국 시민의 외면을 받는다. 남원시는 이 자명한 진리를 직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개선과 변화의 의지를 증명할 때다.

사설

실투자율 73%, 전북도가 보여준 투자유치 성과

기업이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종이 약속’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약 당시에는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영 여건 악화나 시장 변화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성과는 분명 눈여겨볼 만하다. 민선 8기 들어 체결된 투자협약 227건 가운데 73%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성과다.

도내에는 현재 이미 투자를 완료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46곳에 달하고, 96곳은 입주 계약이나 건설, 준공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 중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0%대에 머물던 실투자율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것은 전북자치도가 투자유치를 ‘체결’이 아닌 ‘이행’ 중심으로 관리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투자유치기업 전담관리제는 형식적인 MOU 관행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담관리제는 기업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협약 이후부터 준공·가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방식이다. 분기별 현장 방문과 수시 점검을 통해 투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인허가·부지·자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즉각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환경 인허가 지원, 공장 부지 보조금 연계,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다

르게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물론 아직 투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변수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 사장’으로 마뽀될 것이 아니라, 왜 투자가 지연되는지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전담관리제가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투자 철회 가능성까지 사전에 관리하는 ‘조기 경보 장치’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역시 지역과의 약속을 가법계 여겨서는 안 된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기대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이행을 뒤따라야 한다.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때, 지역 경제는 활력을 얻고,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도 함께 성장한다.

전북자치도의 성과는 투자유치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협약 건수 늘리기에 급급한 ‘양적 경쟁’이 아니라, 실투자율을 높이는 ‘질적 관리’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조정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미적거리는 투자협약 기업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지원해 실제 투자로 이끌어 내는 일이다. 전북자치도가 보여준 집요한 관리와 현장 중심 행정이 끝까지 이어질 때 MOU는 종이장이가 아닌 지역 성장의 실질적 동력이 되어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오늘의시

인동(忍冬) 잎 / 김 춘 수

눈 속에서 초겨울의 붉은 열매가 익고 있다. 서울 근교(近郊)에서는 보지 못한, 쫄지가 하얀 작은 새가 그것을 쪼아먹고 있다. 월동(越冬)하는 인동(忍冬) 잎의 빛깔이 이루지 못한 인간(人間)의 꿈보다도 더욱 슬프다.

시인 약력 : 1922년 경남 통영 출생.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했다. 마산고에서 교사를 역임했다. 1946년에 시 '애가'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61년 경북대와 영남대 국어국문학 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81년 민정당에서 전국구 의원을 하다 정계에서 은퇴한 뒤 시인과 평론가로서 활동했다. 1948년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 출간을 시작으로 '산악(山嶽)', '꽃을 위한 서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등을 발표했다. 1958년에 한국 시인협회상, 1959년에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벼 연구와 정책 동향: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 농업 혁신

벼 농업의 미래는 기후 위기와 식량 주권 강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도전에 맞서 혁신적인 연구와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탄소 저감 기술, AI 기반 스마트 농업, 그리고 국산 벼 품종 개발이 핵심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감탄' 벼의 개발은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초로 특정 유전자를 활용해 메탄 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큰 낱알과 높은 수확량을 자랑하는 '감탄' 벼 품종을 개발했다. 이 벼는 메탄 배출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실증 연구는 실제 농업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재배 기간 단축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 벼 품종에 비

해 한 달 정도 생육 기간을 단축시킨 극조생종 벼가 개발되었는데, 이 품종은 석 달 만에 수확할 수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날씨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를 통해 농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두 차례의 수확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로봇 기술의 결합은 농업의 미래를 혁신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중장기 농업 정책의 핵심은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농업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농림 위성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벼의 생육 상태와 기상 재해를 예측하고, 최적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후 재해를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I 센서의 활용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벼 재배 현장에서의 AI 기반 센서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약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벼 생산성을 높이고, 수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품종 개발과 국산 품종 보급도 중요한 연구 분야다. 외래 품종의 대체는 우리나라 벼 농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7년까지 외래 벼 재배 면적을 1만 ha 이하로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산 품종의 품질을 높이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2026년에는 '알찬미' 등 국산 최고 품질 품종이 공공비축용으로 확정되었으며, 전북의 대표 품종인 '신동진'도 2027년 이후에도 보급급 공급이 계속된다. 이들 품종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국산 쌀 품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26년 쌀 시장은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GSNj 인스티튜트의 '쌀가격 동향'에 의하면 2026년 국내 쌀 공급량은 2025년 대비 약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는 인도의 풍작 등으로 전 세계 쌀 공급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쌀 생산자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벼를 전략 작물로 지정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쌀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벼 농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벼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농업 도입, 그리고 품종 개발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벼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경감하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벼 농업이 더욱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이인석

본란의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div><div><div>JBT</div><div>전북타임스</div><div>Jeonbuk Times</div><div>2026.1.12(월)</div></div><div>www.jeonbuktimes.co.kr</div></div>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8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악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시-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시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힘찬 질주를 시작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장 운영의 핵심 화두로 '민생은 두텁게, 미래는 확실하게!'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5년이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는 '실행과 완성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민선 8기 시장이 4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계획을 넘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정읍시, 2026년 '실행과 완성' 원년 선포

“민생은 두텁게,  
미래는 확실하게”



2026년 신년 기자회견...“준비를 넘어 성과로 증명하는 해”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선순환 '마중물'  
바이오·반려동물 산업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육성 본격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 위기 속 '재정 혁신'...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되다

정읍시의 2026년 시장 설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제적인 민생 지원책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활을 지키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읍시의 철학이다.

이를 증명하듯 정읍시는 올해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결단을 내렸다. 총 305억원 규모의 이 지원금은 1월 19일부터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무리한 지출이 아닌,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시는 관행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전감사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2025년 한 해에만 229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러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성과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쾌거로 이어지며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절감된 예산은 시민 환원 사업으로 이어진다. 시는 올해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및 카드 수수료 지원 등에 33억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 바이오·반려동물·첨단산업... 미래 100년 먹거리 '가시화'

민생 안정과 더불어 정읍시는 지역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실한 기업이 정읍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완결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부터 창업, 생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특히 국비 160억원을 확보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2026~2029년)와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2022~2026년)' 건립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며 바이오 특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예비특구 지정사업'과 연계해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조성하는 등 산업과 복지, 관광이 결합된 융복합 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산업단지 확장(약 5만 5000평) 조성 사업,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약 33만평)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지난 3년 6개월간 정읍시는 21개 기업 유치, 1541억원의 투자 유치, 36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스마트 농업과 체류형 관광... '사람이 모이는 정읍'

농도 정읍의 위상을 미래형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도 계속된다.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하고 농촌 인력증개센터를 활성화해 농번기 인력 수급 걱정을 덜어준다.

더 나아가 정읍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확산 지원, 빅데이터 기반 최적 생산모델 보급 등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른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 정착 지원 등 27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젊은 피가 수혈되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의 변모를 꾀한다. 내장호와 조각

공원 일원에 치유센터와 아트힐링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 수변공간을 만들고, 문화광장에는 익스트림 놀이시설과 동화마을을 도입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한다.

또한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을 본격 운영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정읍만의 고유한 매력을 알리는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다. 도심 속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읍천 야간경관, 벽천 분수, 도심 광장 조성 등 도시 재생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한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각지대 없는 '온기 복지' 실현

2026년 정읍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은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예비부부 결혼 예비비 지원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 소득 기준을 청년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신혼부부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 전용 병동 운영을 내실화해 지방의 필수 의료 공백 우려를 해소시킬 계획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1인 청년 가구 식비 지원, 생애 첫 주택·직장·차량 취득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 주치의 제도 시행, 경로당 양극 추가 지원, 치매 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한다.

이학수 시장은 "2026년은 정읍시가 추진해 온 각 분야의 정책들이 완성 단계로 올라서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읍시의 모든 공직자는 '활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뒤로 당겨지는 것'처럼, 지난 시간의 준비를 발판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의 삶을 지키고, 정읍의 기본 좋은 변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謹賀新年

전주페이퍼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55년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용이를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